

# 카자흐스탄의 인구사회학적인 카자흐화 정책과 재외카자흐인(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이주\*



김상철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ksc37001@hotmail.com)

## I. 카자흐스탄 재외 귀국동포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유럽과 아시아의 가운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근대 이후 가장 급격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여준 국가이다. 19세기 중반이후부터 본격화된 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인 변화 과정은 소련시기를 거치면서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련체제 붕괴이후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 추진되어온 카자흐 민족 문화 및 언어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카자흐화 정책에 의해 정책적인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21세기 지구촌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이주 문제는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주의 일반적인 경향은 후진 국가에서 선진국가로,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더 민주적인 국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특정 집단의 민족 및 문화적인 연계성과 관련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들과 모두 연관되는 이민 또는 이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이라 할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2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 있다. 글로벌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하에서 수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전통적인 국가단위를 초월하여 이른바 세계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교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취하는 이민(또는 이주) 정책은 특정한 목표들을 추구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적인 정체성의 보존과 과거에 대한 찬사들을 지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은 이른바 유출되고 있는 민족집단들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유입 측면, 기존의 민족집단들과 새로 유입된 집단 간의 통합에 집중되어 왔는데, 특히 재외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안정성 확립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 명 규모의 유입이민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6만 명 규모는 오랄만이라 불리는 카자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경제 및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가운데 속해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에 대한 연구나 접근은 당사 국가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는 학문적인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적인 결정의 변화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랄만의 귀국을 다루는 관련 보도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의 카자흐스탄사회 내 통합과 관련된 상황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들은 카자흐스탄의 다민족관계를 연구하는 카자흐스탄 외부의 연구자들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UNDP 카자흐스탄 지부는 이미 2006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오랄만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제적인

이민 문제의 맥락에서 발간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일련의 연구들이 서방측 이민문제, 중앙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몽골출신 오랄만 또는 몽골내 카자흐인 사회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몽골 현지체류 또는 카자흐스탄 귀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구자인 Alexander Diener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변화에 대한 논문을 2007년 발표하여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이 보여주는 카자흐스탄 귀국에 대한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인도 연구자인 Sharad K. Soni도 역시 2007년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에 대한 소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2009년 역시 미국 연구자인 Cynthia Werner와 Holly R. Barcus의 연구를 통해 이어졌는데, 이들의 연구는 몽골의 카자흐인 공동체 속성보다는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였다. 2011년 역시 미국의 인류학자인 Eva-Maria Dubuisson과 Anna Genina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특히 알타이 지역을 중심으로 몽골 카자흐인들의 정체성과 이주 문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귀국사업의 배경과 그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외 카자흐인의 형성 및 확산의 과정을 20세기 이후의 시기로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아울러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주요 대상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정, 그리고 소련 붕괴를 전후로 한 시기에서의 해당국에서의 상황변화, 이로 인한 해당국 카자흐인 공동체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유목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동포 초청 귀국사업에 대한 해당국 카자흐인 사회의 인식도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만 추진된 오랄만 정착사업의 한계와 전망, 이와 관련된 카자흐스탄 사회의 반응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 II. 주요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특징

### 1. 중국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 1) 카자흐인의 중국 이주와 공동체의 변화

중국의 카자흐인은 대략 110만명 규모로, 전 세계 카자흐인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90% 정도가 중국 신장지역의 일리 자치구역, 모리 자치구역, 부르킨 자치구역 및 우르

무치 근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천산산맥 인근 지역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일부는 간수성, 칭하이성에도 거주하고 있는데, 카자흐인이 중국에 거주하게 된 계기는 16-19세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카자흐와 직접 관련되는 사건으로는 1760년대에 청나라는 카자흐의 도움으로 중가리아 칸국의 영역을 차지하였는데, 중가리아에 점령당했던 초원지대를 되돌려받으려했던 카자흐의 의도와는 달리 청나라는 17세기-18세기 카자흐와 중가리아 칸국에 속해있던 오이라트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이유로 카자흐가 회복하려 했던 초원지대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영역에서 1767년 일부 카자흐의 저항이 발생하자 청나라는 일부분을 카자흐에 돌려주었지만, 청나라의 동맹임을 강조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1850년대까지 독립을 유지시키다가 청나라로 편입시켰다.

카자흐 민족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카자흐 소수민족의 발생을 유발하게 된 요인으로는 청나라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국제조약을 들 수 있다. 1860년의 베이징조약, 1864년의 추구차크 의정서(Chuguchak Protocol), 1869년의 홉딘스키 의정서(Hobdinsky Protocol), 1879년의 리바디아 조약(Livadia Treaty), 1881년의 삐제르부르크 조약(St.Petersburg Treaty) 등에 의해 카자흐의 영토와 인구들은 공동체 내부의 유대감이나 연대의식과는 상관없이 제정러시아와 청나라로 분할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후 제정러시아령이 된 현재의 카자흐스탄으로는 스톨리핀 개혁에 의해 러시아인 농민이 유입되어 카자흐 유목민의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초지 사용은 제약되었으며, 이로 인해 1902-1913년 사이에 대략 29만여 명의 카자흐인이 감소하였는데, 대부분은 일리강과 신장의 알타이 지역 초원지대로 이주함에 따라 1911년에 이미 중국 카자흐인은 23만 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후 중국의 카자흐인은 1916년 제정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포한 군대집결령에 대한 반발로 카자흐인의 탈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 소련 시기에는 내전에 카자흐인 상당수가 국외로 탈출하게 되는데,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1930년대에는 소련 시기에 이루어진 집단화 및 민족엘리트에 대한 대숙청에 대한 반발로 인해 대략 1백만명 이상의 카자흐인들이 이웃 국가로 탈출하였고, 이 시기에 20만명 규모의 카자흐인이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중국 카자흐인의 유출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1930-40년대에 중국 신장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봉기에 카자흐인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1944-49년 일리강 지역의 봉기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목지대였



〈그림 1〉 현대 카자흐스탄-중국간 국경선과 국경 검문소



※ 자료: <http://arkankergen.wordpress.com/2012/06/14/22-14-06-2012->

던 동투르크스탄(신장)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에 카자흐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카자흐인들은 청나라 시대 이후로 이 지역에서의 유목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목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표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목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과 충돌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이러한 카자흐인들의 봉기참여는 중국공산당에 반대하고, 또한 한족의 이 지역 유입에 반대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봉기들을 주도했던 카자흐인 집단은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1943년 중국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장에는 93만명 정도의 카자흐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사회내에서의 입지 변화가 반영되어 1953-54년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략 51만명 정도로 감소하였다.

또 다른 카자흐인 감소요인으로는 1930-40년대에 우르무치 행정당국은 유목민을 한족 농민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무장 카자흐 군대의 존재는 행정당국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족 세력은 신장지역 전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행정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충분한 세력이 될 수 없었다. 결국 신장지역에서 당시 소수집단이었던 한족 세력과 다수 세력이었던 무슬림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1936년 중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봉기에서 패배한 결과 1만8천여 명의 신장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티베트와 인도를 거쳐 터키에 정착하였다.

신장에 남아있었던 카자흐인들은 이후 1943년 6월 알타이 지역에서는 카자흐인을 남부 신장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행정당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새로운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 일부가 1950년대에 역시 신장을 떠나 몽골로 피난하였다. 1944-45년에 발생한 일리 반란에 참여한 카자흐인들은 1950년대에 파키스탄으로 피난을 해야 했다. 1945년 8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군대의 설립이 선언되었고, 이는 일리-타르바가타이-알타이의 이른바 신장에 위치한 카자흐가 관할하는 세 지역을 공산정권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통치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상당수의 카자흐인 지도자들이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집행부에 적극 참여하였고, 1946년 7월에는 우르무치의 시장으로 카자흐인 여성이 선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탈출이주는 1950년 중국 공산당 군대가 신장지역에 통치권을 확립하던 시기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카자흐인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인 유목과 이슬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1949년 8월 27일 비행기 추락으로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부가 사망했는데, 10월 1일에 이 지역 공산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동투르키스탄 인민공화국의 설립이 선언되었고, 10월 20일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대가 우르무치에 진입하게 되면서 신장지역 공산화는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산화 이전의 카자흐인 지도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카자흐인들은 신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이들은 티벳을 지나 파키스탄에 피난민 신분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일부는 파키스탄에 남고 일부는 터키로 재 이주하였다.

신장 정착 초기단계에서 지도부의 붕괴를 경험하였던 중국 카자흐인의 역사는 대략 4가지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1949년 이전의 전통적 시기, 소비에트 식 생활 방식이 도입된 1949-1966년 사이의 공산혁명기, 과거의 모든 전통적 흔적들을 포기해야 했던 1966-1977 사이의 문화혁명기,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룬 문화혁명이후시기로 나누어진다. 혁명이전 시기 중국 카자흐인의 삶은 러시아 문화요소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전통적인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과 비교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카자흐어의 경우에도 키릴문자로 표기되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와 달리 중국 카자흐인의 카자흐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방식인 아랍 문자를 이용하여 표기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라틴문자를 사용한 중국식 카자흐어 표기체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 그 위상이 상이하었는데,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슬람 사원, 종교적인 건축물들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최근에 와서 중국 서부 지역에 새로운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회문화 환경 변화와는 다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의 카자흐 유목민들은 환경 악화로 인한 제약, 경제적인 변동과 정치적인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조상 세대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현대사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화 대신 직업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을 유목민으로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카자흐인들은 중국 정부가 환경 복원 및 보존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목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비자발적인 정착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유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있으며,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경제 환경과 환경적인 압박으로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에서 유목하는 카자흐인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많은 유목민들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유목을 유지할지, 아니면 유목을 중지하고 정착할지, 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오랄만 프로그램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할지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중국 신장의 유목 카자흐인들에게는 이후 삶의 패턴 선택이라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으로 이해 만들어진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중요한 새로운 선택 옵션으로 부상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내걸고 있었던 무상의료, 무상 교육 공약은 유목 카자흐인들에게 카자흐스탄 이주가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에게 카자흐스탄은 일종의 희망의 땅으로 부각되었는데, 특히나 중국 서부지역으로의 한족 및 한족문화 유입의 확산으로 인해 카자흐의 전통적인 생활패턴 및 문화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 2) 중국의 서부개발과 카자흐인의 귀국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급격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빈부 격차의 해소, 환경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중국 중앙정부는 농촌의 사회 및 환경적인 복지간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9년 이후 서부 개발은 중앙정부 활동의 주축이 되었고, 이 계획은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참여 기회의 증대, 사회적(지위)이동 방식의 패턴 확대, 환경적인 지속성의 보장을 촉진 시키는데 있었다. 신장지역은 바로 이 계획에서 가장 중심지대로 2002년 이후로 에너지 부분에 대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또한 광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 국내외로부터 투자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투자의 증대는 정체상태에 있던 이 지역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로 인한 구직의 증대로 농촌 및 도시 모두에서 수입이 증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중국의 서부 대 개발은 신장의 카자흐 유목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수용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경제정책에 의한 변화들은 이들이 처해 있던 곤란한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켰고, 중국을 떠날려는 이들의 희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유목민들이 가축 사육에 사용하게 되는 초지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에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목 카자흐인들에게는 변화는 불가피했고, 기존의 유목 초원지대를 가축 사육이 규제되는 초원지대로 변화시키는 정책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초원지대를 환경적인 기능지역, 경제적인 기능지역, 혼합 기능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구분되며, 가축사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역 순환방식에 의해 서만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이는 결국 카자흐인을 비롯한 유목민들이 삶의 패턴을 유목에서 정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의 유목민들은 1980년대 초 유목초지 이용 증 제도를 통해 자신들이 유목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당국의 유목민 정착 및 유목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축소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유목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목을 포기하고 도시에 정착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과 같은 대안은 그리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erny 2010, 229) 유목초지 이용 증은 1980년대에 발급된 이후로 인구수 변동에 따른 갱신조치가 없었고, 유목민 젊은 세대들의 증가에 따른 목초지 증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1980년대 당시의 목초지를 현재는 장년층 이상이 된 당시의 젊은 세대들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공유함에 따라 유목민 공동체 내부의 환경도 악화된 상황이다.

중국 중앙정부 당국은 상당기간 동안 이미 유목민의 정착을 유도해왔는데, 최근에는 자발적인 정착과 비자발적인 정착 모두 증가하고 있다. 정착을 하는 경우에는 유목 가구에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주어지고, 농경으로 정착한 유목민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며,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모세대들이 행해왔던 계절적인 이동의 형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는 특히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도시화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목민으로써 유목초지 및 민족적인 유산에 대한 애착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선호했던 카자흐 유목민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는 중국의 카자흐인들이 카자흐스탄을 인구가 부족하며, 자신들이 유목민의 자격으로 되돌아가면 대규모의 유목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Cerny 2010, 230).

중국의 카자흐 유목민이 카자흐스탄 이주를 선택하는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자녀들의 미

래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은 이미 친척 가운데 일부분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했고, 이들은 먼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쉽사리 추진하여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카자흐 유목민들에서 파악된다. 이러한 인식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인접한 지역들은 중국의 신장 대부분 지역에 외부인의 유입이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후지역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부상은 신장 지역에 상당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유목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자녀의 미래와 관련되어서는 나타나는 카자흐스탄 귀국의 부류에는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먼저 가서 카자흐스탄의 도시에 정착해 있거나, 또는 젊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카자흐인으로써 살아가기 위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귀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유목 카자흐인들 사이에는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면 자녀들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실제에는 상관없이 여하튼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emy 2010, 235) 중국에서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변동 격차가 큰 유목민의 수입에서 볼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카자흐인들에게 알려진 카자흐스탄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은 이들이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카자흐인은 현재 카자흐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사회 환경 측면에서 신장지역에서 소수민족 학생들이 자 민족어 학교가 아니라 중국어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신장 지역에서는 특히 카자흐인과 위구르인 사회에서 민족 언어 및 문화 전통의 상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 카자흐인 공동체에서의 가장 손쉬운 대처 방안으로는 바로 사회적인 실제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중심어로 자리매김한 카자흐어가 자유로이 통용되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2.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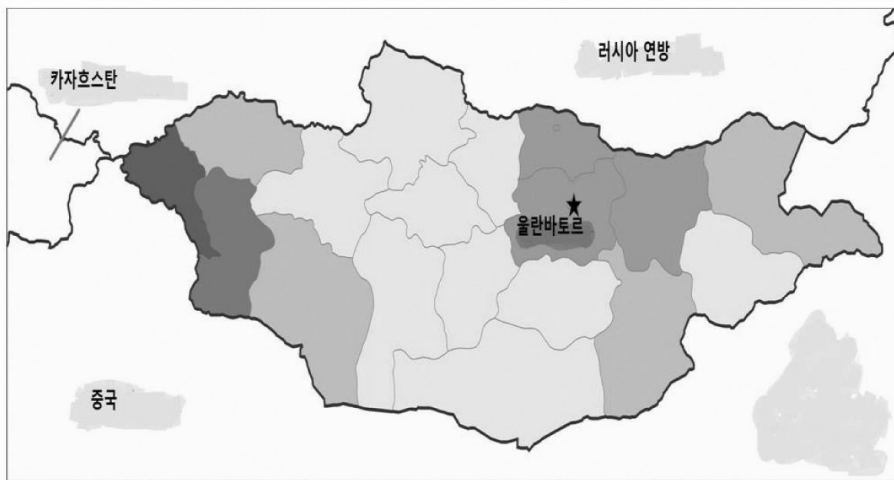
### 1) 공동체의 형성과 분포

몽골의 카자흐인은 몽골 인구 전체로 보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지만, 몽골계를 제외한 소수민족 집단들 가운데에는 가장 큰 집단으로, 특히 서몽골지역에서 문화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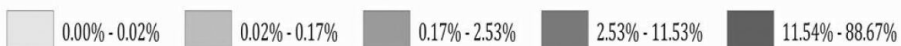
두드러지는 특징을 지켜오고 있다. 카자흐인이 최초로 몽골로 이주한 기록은 184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지역 출신이 아닌 중국 서부에서 몽골로 이주하였다. 1905년 1,370가구의 카자흐인 규모는 1924년 몽골 인민공화국 형성시점에는 카자흐인 공동체가 1,870가구로 확대되었고,(Diener 2007, 463) 20세기 중반까지 소련 및 중국서부로부터 카자흐인들이 몽골로 이주함으로써 공동체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 시기 소련과 중국서부로부터의 카자흐인의 이주 원인으로는 제정러시아 및 소련, 그리고 중국서부에서 이루어진 유목지대로의 식민화와 이를 위한 유목초지의 농지전환, 불세비키 혁명으로 인한 중앙아시아 사회 변화에 대한 부적응, 1930년대의 집단화와 토착민족 대 탄압에 대한 반발, 1930년대 중앙아시아의 대기근 등이 원인이었다.(Cummings 1998, 135-136)

1930년대에는 카자흐인 거주지역이 몽골의 행정구역 단위로 형성이 되었는데, 찬다마니울 구역(Chandamani Uul aimag)과 홉드 구역(Khovd aimag)으로 구성된 카자흐인 거주 지역은 1940년에 일정부분 자치가 허용되는 바얀 울기 구역(Bayan Ulgi aimag)으로 발전되었으며, 몽골 정부에 의해 1940년대에 반(半)자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카자흐인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이 지역의 카자흐인 비율은 거의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카자흐어 학교나 몽골어 학교 가운데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었다.

〈그림 2〉 몽골의 카자흐인 분포도(2010년)



2010년 기준 몽골 각 도(아이막)별 카자흐인 분포도



※ 자료: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

몽골 카자흐인들은 바얀 울기 구역, 홉드 구역 홉드 소움(Khovd Aimag Khovd soum)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얀 울기 구역에는 1989년에는 구역 전체 인구의 91%, 2000년에는 88.7%가 카자흐인이었고, 홉드 소움은 96%가 카자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몽골의 다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카자흐인 공동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카자흐인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다. 몽골의 카자흐인들은 공동체 형성 초기부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자치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인 카자흐스탄 지역과의 접촉은 소련 당국의 정책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문화적인 자치를 누리고 있었던 몽골 카자흐인들과 이들의 역사적인 모국간의 교류는 소련시기에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가 양 국가의 카자흐인 공동체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이후에는 이러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리는 없어졌지만, 소련시기 카자흐 문화에 러시아 문화요소가 흡수됨에 따라 이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 문화와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독립이후 카자흐스탄과 접촉이 허용된 몽골 카자흐인들에게는 이러한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했던 변화의 과정을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으로 인식되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몽골 카자흐인의 역사적인 조국 귀환을 금지했던 지정학적인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도 증가하게 되었다.

〈표 1〉 2010년 몽골의 민족별 인구구성 비율

구성 민족 명칭 및 계통	비율(%)
칼크(Khalkh) (몽골)	82.4
도르벳(Dörbet) (몽골)	2.75
바이드(Bayid) (몽골)	2.15
부리야트(Buryat) (몽골)	1.71
자크친(Zakhchin) (몽골)	1.25
기타 몽골계 (몽골)	1.25
카자흐(비몽골)	3.86
기타 투르크계(비몽골)	0.7
중국인, 러시아인, 한국인, 미국인 등	0.5

※ 자료: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

2010년에 발표된 몽골의 민족별 인구구성을 보면 카자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몽골계 부족으로는 가장 그 비율이 큰 3.86%로 1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1989년에는 12만명 정도로 몽골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9%였는데, 2000년에는 4.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인구 추세에서 알고 있듯이 몽골 카자흐인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허용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몽골 카자흐인 공동체의 형성과 분포 측면의 특징과 아울러 몽골 카자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과 카자흐스탄 사이에는 국경선이 서로 접해있지 않고, 47-60km에 달하는 중국의 국경이 두 국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의 카자흐인 집중 거주 지역인 바얀울기와 톱드 지역은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몽골 자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평균 해발 1,300미터 높이의 알타이 산맥은 몽골의 서부 지역을 몽골의 다른 지역들과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고, 1930년대에 중국과 소련이 국경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서 몽골 카자흐인들은 알타이 산맥 반대편의 카자흐인들과 접촉 및 관계의 단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자연적인 입지로 인해 오늘날에도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직접 연결하는 운송로는 서몽골과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을 직접 연결하는 육상도로나 철도는 여전히 건설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몽골 국내에서도 카자흐인 집중 지역인 서 몽골과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이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으며,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연결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림 3〉 몽골-카자흐스탄간의 국경지대와 주요 도시



※ 자료: [http://www.mac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http://www.mac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

## 2) 몽골 카자흐인의 사회변화와 귀국

몽골 서부지역은 몽골-카자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보존해온 지역으로, 이 지역의 카자흐인들은 몽골사회로의 통합과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이주라는 상황에 직면해있



다. 1990년대 초반 몽골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러시아어 사용의 보편화,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동포 카자흐인들에 대한 특혜 부여로 인한 카자흐스탄 사회 내에서의 갈등 유발 등이 이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에서는 몽골에서 귀국한 카자흐인들을 카자흐인이 아니라 몽골 인으로 인식하는 등 몽골 카자흐인과 카자흐스탄 간에는 공통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는 몽골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스탄 귀국 열망을 잠재우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Diener 2007, 475) 이러한 몽골 카자흐인들의 대안은 몽골내에서 공식적인 카자흐인 영역의 확대 촉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전의 시기부터 몽골의 카자흐인 구역이었던 바얀 울기에서는 몽골 국가의 하부문화로 카자흐 공동체와 문화를 인정하고,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신생 독립국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카자흐스탄이 겪어온 사회문화적인 경험으로 인해 몽골의 카자흐인들이 누렸던 만큼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1-2002년 사이에 Alexander Diener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들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 동일하다는 비율이 18.7%였다.(2007,475) 몽골의 카자흐인 사회는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카자흐인 구역이었던 바얀 울기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카자흐인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바로 유목생활, 그리고 몽골과의 유목적인 전통의 공유를 꼽고 있었다(Diener 2007, 476). 이러한 흐름과 아울러 1990년대 초반 당시 12만 명 정도였던 몽골 카자흐인 가운데 대략 6만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서몽골의 사회 및 인구 구성에서 변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2010년의 인구조사 결과에서는 몽골 카자흐인의 숫자가 1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던 몽골 카자흐인들의 상당수가 몽골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는 몽골 카자흐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할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가 약속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몽골로 되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애초 예상과는 달리 몽골 카자흐인들이 기대했던 역사적인 모국사회로의 통합은 수월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iener 2005), 327-348)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 카자흐인 수용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몽골 카자흐인 사회 전체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던 점도 밝혀지고 있는데, 몽골출신 카자흐인의 이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몽골 정부의 보고서 및 카자흐 신문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카자흐스탄으로 적극적으로 이주한 몽골 카자흐인은 몽골에서 카자흐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른바 전문직 카자흐인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Diener 2007, 468) 또한 카자흐스

“  
몽골 카자흐인의 이주를 분석해보면, 전 세계적인 비자발적 대규모 이주에서 흔히 보이는 이주의 압박 요인들인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박해 등이 이들의 카자흐스탄 이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탄으로의 이주 이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카자흐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바얀 울기의 낙후된 삶의 여건에서의 탈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몽골에서 바얀 울기 이외의 지역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카자흐인들은 이주를 카자흐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중심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몽골 카자흐인의 이주를 분석해보면, 전 세계적인 비자발적 대규모 이주에서 흔히 보이는 이주의 압박 요인들인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박해 등이 이들의 카자흐스탄 이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련 붕괴 이후의 몽골의 민족주의는 몇 차례 나타난 적은 있지만, 비몽골계 민족을 밀어낼 정도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지는 않았다. 오히려 바얀 울기 지역에서 카자흐인들은 1990년대에 문화자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카자흐어를 이 지역의 공식어로 확립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에서도 몽골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압박 요인보다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시하는 카자흐스탄 재정착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더욱 강한 이민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초 대규모 유출 이민으로 인해 인구적인 공백이 발생한 카자흐스탄에서는 특히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언어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카자흐인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몽골카자흐인으로 카자흐스탄의 인구 공백 해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Bacus & Werner 2007, 8)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몽골 카자흐인의 귀국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6만여 명의 초기 귀국 몽골 카자흐인 가운데 1/3 정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몽골로 되돌아왔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이른바 러시아화된 카자흐인에 의한 문화적인 차별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몽골 카자흐인의 러시아어 능력 부족, 몽골에서 귀국한 카자흐인 대부분을 개인의 직업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력 부족이 심했던 카자흐스탄의 도시지역으로 임의 배치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었다.

2000년대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의 급성장으로 몽골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이주는 재개되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다가 몽골로 귀국한 부류들도 상당수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젊은 세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직업이나 유목을 통한

생계유지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지 않고 몽골에 살고 있는 카자흐인의 삶에도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간이 지속적인 이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고립적인 형태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관광 등을 통해 몽골 카자흐인들의 삶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러한 삶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본업인 유목 대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몽골 카자흐 유목민 집단도 증가했다.

### 3.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 1) 우즈베키스탄 카자흐공동체의 형성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공동체는 그 형성과정인 인접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달리 실제 카자흐스탄이 민족공동체에서 국가공동체로 발달되는 과정과 비슷한 정도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9세기 초반에는 타슈켄트와 히바간에 아랄해 동쪽지역에서 유목을 하고 있는 카자흐 오르타 жуз 일부 부족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들 부족은 자신들이 타슈켄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히비는 이들이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보고 있었다. 20세기 초반에 이들은 부하라주 카니메흐스크 구역의 스텝지역에 정착하였고, 이후 이 지역에는 1925년 카자흐-카라칼팍 자치구역이 형성되어, 대략 2만여 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로 카자흐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개별 жуз에 따라 우즈베크 민족을 구성하게 되는 3개의 칸국의 통치를 받거나 이들 칸국과 인접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후 소련시기의 중앙아시아 국가 간 국경 획정과정에서 소련 연방정부의 민족정책에 의하여 우즈베키스탄 영역 내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20년 투르키스탄 자치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구조사에서는 대략 110만명의 카자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926년 이 지역이 현대의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유사한 체계로 지역이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는 대략 10만 명의 카자흐인들이 남게 되었다. 이후 193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인이 30만 명 규모로 늘어났는데 (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 2002, 111), 이는 이전 인구조사에서는 러시아공화국에 속했던 카라칼팍 자치구역이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우즈베키스탄에 편입되어 이 지역의 카자흐인이 우즈베키스탄 인구에 포함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기근, 그리고 강제적인 집단화의 추진으로 인해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공화국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결과 1959년 우즈베키스탄 거주 카자흐인은 34만 명 규모였고, 1970년에는 48만여 명 규모로 늘어났다.(Open Society Institute

1959년 인구조사와 1970년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규모는 대략 1.4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연적인 인구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선 조정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침켄트주 일부분이 우즈베키스탄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1989년 인구조사에서는 카자흐인 공동체의 규모가 거의 81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들은 그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유목 우즈베크인들의 중앙아시아 정착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착패턴을 그대로 흡수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 유목은 축소되고 정착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이 변화됨에 따라 비 유목 분야에 종사하는 카자흐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공동체는 지역으로는 스리다리야주, 지작주, 누크스주, 나보이주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카자흐인들 가운데 다수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이주하려는 이유는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의 경제 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두 자리 수의 성장, 매년 10% 내외의 GDP성장을 보여준 반면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침체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카자흐인 거주 구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중부 지작주에 위치한 미르자출 구역은 인구가 대략 42,000명으로 70%가 카자흐인이다. 이들 가운데는 소련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경설정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속하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온 카자흐인들도 있지만, 1960년대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들 우즈베크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인구적인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의 1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 카자흐인이 사는 곳에서는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카자흐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 사회에 주어진 이주쿼터의 3배 이상이였다.

## 2)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귀국과 정착

소련 붕괴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재외 카자흐인의 귀국을 추진해왔음을 앞서 중국 및 몽골 사례에서 알 수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으로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소련시기의 집단화 추진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사람들의 후

손들이 포함되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련초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국경설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살게 된 재외 카자흐인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매년 귀국민 쿠티를 정하고, 이 쿠티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혜택을 부여했는데, 실제 귀국민의 숫자는 늘 쿠티 이상이었는데, 2001년의 경우에는 600가족이 쿠티 상으로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10,000가족 이상이 귀국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인의 귀국 배경은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인 문제점들과, 이외는 대조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인 전망이 그 원인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가족의 결합이란 측면을 강조하였다. 카자흐스탄 이민 당국은 2003년 8월 기준으로 67,882가족의 오랄만들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쿠티제도에 의해 귀국한 경우는 단지 23,000가족에 불과하다. 쿠티제도와 상관없이 귀국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쿠티는 5,000가족, 2004년은 10,000가족, 2005년은 15,000가족으로 확대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카스피해 항구도시인 악타우는 1991년 소련 붕괴이전에는 세브첸코로 불리었다. 악타우의 중심항구 지역에서 약간 떨어져있는 과거의 다차촌은 소련시기 제조업 도시로 유명했던 세브첸코에서 일하던 기술 인력들이 살았던 곳이었었는데, 소련 붕괴 이후 이러한 인력들이 카자흐스탄을 떠나게 되면서, 이들이 사용했던 시설들은 방치되었다가, 근래에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 동포인 오랄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잠재적인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일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지난 20여년간 카자흐스탄 정부의 오랄만 정책에 의해 86만여명의 카자흐인들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10만여 명 정도가 인구밀도는 낮지만 석유자원이 풍부한 망기스타우 지역에 정착하였다. 카자흐스탄 서부 주들의 인구는 1999년 이후로 거의 67%정도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성장률의 절반 정도는 오랄만의 이주와 정착에 의해서 이룩되었다. 망기스타우 지역 오랄만의 거의 85%는 1991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주하였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 카자흐인 귀국 사업의 결과는 이들이 카자흐스탄 사회에 부적응하는 여러 가지 현실과 관련되어 상충되는 입장이 갈등의 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초청 프로그램에 의해 귀국한 이들은 자신들이 귀국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는 입장이 보편적이었다. 반면 카자흐스탄 정부 당국은 이 지역에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회적 불안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오랄만들이 사회적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12월 16일 망기스타우의 장아오젠 유전지대에서 발생한 근로자와 경찰간의 무력충돌 및 시위의 원인으로 이들은 오랄만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조치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다수의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장아오젠 사태로 인해 오랄만 정착(지원) 프로그램 중단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표명과 아울러 2012년 2월 1일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는 2009-2011년 사이에 카자흐스탄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귀국한 오랄만들 지원 프로그램인 'Nurdy Kosh 재정착 프로그램'을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통해 오랄만들의 불만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 III. 재외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과 정착

#### 1. 재외카자흐인(오랄만)의 형성과 변천

오랄만(Oralman)은 이른바 '귀국민(returnee)' 이란 의미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카자흐 민족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오랄만은 보통 카자흐스탄의 이웃국가들인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카자흐 민족은 대략 1450만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00만 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카자흐스탄 국외의 구소련 14개 국가 및 세계 25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450만명 가운데 80만 명은 디아스포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370만명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일종의 실향민이라 규정할 수 있는데,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카자흐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대략 150만명, 중국에 150만 명, 러시아에 100만명, 투르크메니스탄에 10만명, 몽골에 8만 명, 키르기스스탄에 4만5천여 명 등이 살고 있다.

해외에 형성된 카자흐 민족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1920년대와 30년대 소련시기에 소련의 정치적인 탄압, 강제 집단화, 대기근 등의 이유로 카자흐스탄을 떠났던 집단들의 후손들이다. 소련시기에 대략 20만 명 규모의 카자흐인이 중국, 몽골,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반면 카자흐스탄과 이웃한 소련의 연방공화국들에서는 1926-1939년 사이에 카자흐인의 인구가 2.5배 증가하여 대략 79만 명이 넘고 있었다. 1959

년 시점에는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인보다 더 많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9년이 되어서야 카자흐인이 다시 러시아인보다 수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반전되었다. 소련의 붕괴이후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으로 특히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유출이민에 따른 대규모 인구학적인 공백이 발생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대략 316만여 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을 떠났는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 독립 전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89년 1650만 명 규모에서 1999년에는 1500만명 규모로 감소하였다.

인구학적인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한달 전인 1991년 11월 18일에 소련의 다른 공화국 및 해외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 이주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인에 대한 관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 아울(전통마을)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1991-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대략 61,000여명의 카자흐인들이 이주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이민법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 카자흐인들과 관련된 절차와 지원이 확립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대규모 귀국이 예상되었던 오랄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귀국이민 쿼터제가 만들어졌으며,<sup>2)</sup> 귀국이민자들을 관할하는 기구도 만들어졌다.

## 2.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정착실태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선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형의 과정이 대규모 유출이민과 수반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그 이후 카자흐스탄이 대규모 유입 이민을 추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적인 이유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재외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스탄 귀국사업은 카자흐스탄 국가의 민족정체성보존과 사회내부적인 안정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소련시기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인 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카자흐 전통관습이 사라졌으며 특히 카자흐어의 사용이 공식영역 뿐만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카자흐어와 카자흐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던

2) 오랄만 쿼터에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특별기술 및 자격 보유 항목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이러한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10점이 부여되며, 2. 교육수준 항목에서는 가족 구성원 전부가 중등 기술, 중등 직업교육 이상인 경우 2점, 가족 구성원 가운데 1명이 고등교육 수료 이상인 경우 3점, 가족 구성원 가운데 2명 이상이 고등교육 수료 이상인 경우 5점이 부여된다. 3. 자녀 항목에서는 자녀 5명 이상인 경우 10점, 3-4명인 경우 5점, 1-2명인 경우 3점이 부여된다.

상황에서 재외 카자흐인인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귀환은 카자흐 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키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고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국가 이민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오랄만들은 거주환경과 편의성 측면에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유사한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주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반면 중국과 몽골 등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랄만들은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을 선호하고, 특히 남부 지역을 선호한다.

오랄만들은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 귀국 이후 러시아어 구사력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흡수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에서 온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오랄만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지에서부터 귀국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적어도 7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서 민족 언어와 문화들을 유지하면서 생활해왔다. 이들이 서로 상이한 조건의 외국에서 살아오므로 인해 오랄만 이주는 전통적인 카자흐 문화와는 차이를 보이는 다른 문화유산들의 카자흐스탄 유입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은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 대중매체 및 공공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오랄만들은 지역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흡수되고 있지만, 일부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원래 살았던 국가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역 공동체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새로운 이주민 유민 과정에서 이주민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관대했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역설적이게도 같은 동포라 할 수 있는 오랄만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랄만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설정한 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귀국, 이와는 상관없는 자발적인 귀국에 대한 지원의 양상이 달랐다는 측면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에게 직업제공, 주택 보조 및 물질적인 보조 등이 포함된 다년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재외 카자흐인의 귀국사업을 시작하였다. 애초에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제시된 혜택들은 이행되지 못했고, 노동계약에 의해 이주한 재외카자흐인들이 5년간의 노동계약 종료 이전에 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1991-98년 사이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쿼터를 초과하는 규모로 이주가 이루어졌고, 이런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 없이 정착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7년 재외 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과 관련하여 시민권 취득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입법함으로써 변화되었다.

이와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한 재외카자흐인 귀국사업에서의 쿼터배정, 제도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년 귀국할 수 있는 연간 쿼터는 1993년부터 실시되어 1993년에는 1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후 1990년대말까지는 그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500가구 수준으로 하락했다(UNDP Kazakhstan 2006, 9).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쿼터도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1만5천 가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쿼터제도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카자흐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하여 초기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이민의 허용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국사업을 통한 카자흐스탄 사회의 카자흐 중심 구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취지와 기능은 상실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쿼터제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이주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2003년, 2004년의 경우 공식 쿼터는 1만명 이었지만, 쿼터와 상관없이 8000여명 이상이 자발적인 귀국을 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아랄 해 환경재앙지대에 속해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지역, 나보이 지역 출신 카자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재외카자흐인의 규모가 10만명 수준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61%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고, 몽골 출신이 15%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법적인 토대는 1997년 시행된 주민 이주법(Law on Population Migration)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귀환한 오랄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을 위한 예산은 매년 책정되어 왔는데, 2002년에는 3억7천5백만 텡게에서 2003년에는 20억 텡게, 2004년에는 50억 텡게로 확대되어 왔고, 2006년에는 111억 텡게로 예산이 확대되었다(UNDP Kazakhstan 2006, 11). 귀국 오랄만에 대한 지원은 오랄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지원제도와 쿼터제에 따라 귀국한 쿼터제 귀국자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차이는 다음의 표에서 잘 알 수 있다.

〈표 2〉 오랄만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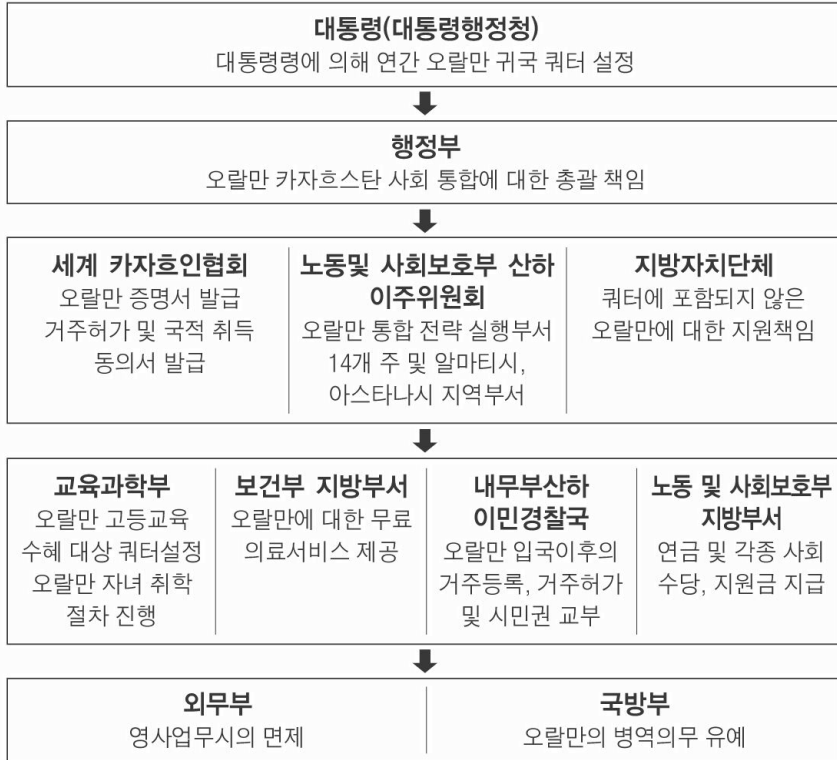
귀국 오랄만에 대한 기본 지원제도	쿼터제 귀국자에 대한 추가 지원제도
연금지급 수당지급(장애, 실직, 퇴직) 특별수당 지급 정치탄압 희생자 복권법에 따른 특별 보상 오랄만 자녀들에 대한 초등 및 중등교육 장학금 지원 비자발급 단계에서의 수수료 면제 군대 징집 유예 무료 의료서비스 보장 특별 사회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취학, 유아교육 및 각종 교육 기관 입학에 대한 지원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교육 지원	귀국시 세관신고등의 의무 면제 영구귀국하는 오랄만의 소지물품에 대한 영구정착지까지의 일정량 무료운송 가장 및 개별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거주지원 수당의 일시 지급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 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이주를 하여 이주초기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반면, 60%가 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경우에는 CIS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비자면제 조항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용하는 쿼터제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카자흐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귀국한 재외카자흐인 집단에서 실제 사회내에서는 오랄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법제에 대한 무지, 카자흐스탄 사회의 언어실정에 맞지 않는 언어 구사능력, 귀국 재외 카자흐인을 위한 특별 교육의 부재, 이주 전 거주 국가 연금제도와 연계된 연금체계의 부재, 농촌지역에서 현지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심리적인 괴리 측면 등이 재외 카자흐인 이주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기존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통합에 필요한 각종수당, 직업교육 및 언어교육과 관련되는 지원뿐만 아니라, 오랄만 적응센터의 설립에 대한 입법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오랄만의 귀국 및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 해온 기구는 그 시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랄만 귀국사업의 시작과 함께 이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는 노동부 산하의 이민국이었는데, 쿼터제도의 실행과 오랄만 귀환 및 사회

〈표 3〉 카자흐스탄의 귀국 재외카자흐인(오랄만) 공식 지원체계



※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2006, p.12.

통합에 관련된 분야는 대통령 행정청 소속으로 1997년 설립된 특별 정부기구인 이주 및 인구국(The Agency for Migration and Demography: AMD)으로 이관되었다. 2004년 11월 AMD는 노동 및 사회 보호부 관할 이주위원회로 승격되면서 관할 역시 대통령 행정청에서 노동부장관으로 감독기관도 변경되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행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오랄만의 귀국 및 재정착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 IV. 카자흐스탄 귀국 오랄만의 특징과 변화

### 1. 기본특성과 이주패턴

재외카자흐인의 카자흐스탄 귀국 급증현상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급성장기와 거의 일치

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1991년부터 2005년 사이가 이에 해당된다. 2005년 10월 카자흐스탄 국가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46,442명의 오랄만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연령층 구성은 16세미만 43%, 경제활동 참여인구대인 16세-60세 사이가 52%, 연금생활자인 61세 이상이 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에서 남녀 비율인 49%대 51%가 귀국 오랄만에게서는 48%대 52%였고, 기혼자는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적은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 이주한 오랄만 가운데 76%가 취득하였고, 나머지 21%는 국적취득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국적신청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3%는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거나 국적취득을 희망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카자흐스탄 전체 유입이주자 가운데 오랄만은 33% 수준으로, 2005년에는 오랄만의 비율이 거의 80%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오랄만 쿼터가 2004년까지 1만가구에서 2005년부터 1만5천 가구로 늘어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다.

오랄만의 출신 국가는 아시아, 유럽, 중동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특히 많은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러시아가 있었고, 이외에도 타지키스탄, 이란, 키르기스스탄,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CIS와 동유럽 국가, 그리고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있었는데, 비율로는 우즈베키스탄 62%, 몽골 15%, 투르크메니스탄 9%, 중국 5%, 러시아 4%, 타지키스탄 2%, 이란 1%, 키르기스스탄 1%, 터키 1%였다(UNDP Kazakhstan 2006,13). 시기별로는 카자흐스탄에서 경제호황 현상이 두드러졌던 2000년대 초반 5년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유입이 급증했는데, 2001년 24,859명이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2002년 87,596명, 2004년 46,787명, 2005년 78,123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급성장이 맞물린 결과였다.

오랄만은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정착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많이 정착이 이루어진 곳은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는 남카자흐스탄 주이다. 이곳에는 122,131명의 오랄만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오랄만 인구의 26% 수준이며, 다음은 13%에 해당되는 61,737명이 거주하고 있는 망기스타우주, 그 뒤로는 알마티주 60,770명, 잠볼 주 49,36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착패턴은 몇 가지 측면의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쿼터제도에 의해 이주하는 경우 개인의 정착지역 선택은 특정 몇 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

3) 카자흐스탄 통계국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었다. 1990년대 초에는 쿼터가 주로 북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할당되었고, 이는 북부와 중부 지방에서의 대규모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학적인 손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후 쿼터는 남부지역으로 할당되었고, 2005년의 경우에는 쿼터를 통한 이민자가 포함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73%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남 카자흐스탄 주에 정착하였다.

쿼터제 이외에도 출신 국가와의 근접도, 언어, 환경, 고용기회 등이 다양한 정착패턴의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서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오랄만 가운데 상당수는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해있는 남 카자흐스탄 주에 정착했다. 이외에도 남카자흐스탄 주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외에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출신 오랄만들이 거주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 과거 살았던 지역과의 인접성이 많이 작용하였다.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오랄만들은 카자흐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정착을 선호하였으며, 역사적인 연계성, 친척들의 존재 유무도 지역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준 요인들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바로 인접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카자흐스탄 주와 비교되는 지역은 남카자흐스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랄만이 많은 망기스타우주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오랄만들이 정착을 선호했던 지역인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출신들에 의해 많이 선호되었다. 망기스타우주에 거주하고 있는 오랄만 가운데 거의 95%가 앞서 언급된 두 국가 출신이며, 타지키스탄 출신은 역사적인 연고지 측면에서 이 지역을 주로 선택했다. 이러한 배경 이외에도 망기스타우주와 관련하여 이곳의 임금 수준이 2002년에 이미 카자흐스탄 평균 임금의 거의 두배에 달하고 있었던 점도 역시 중요한 정착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완료한 오랄만에게서는 이후 2차 이주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대략 24% 정도가 한 차례 이상 2차 이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패턴은 쿼터제에 의해 농촌에 정착해야 했던 오랄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였으며, 1990년대에는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 정착한 오랄만들이 남부지역으로 재이주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농촌지역에서 현실적인 구직의 어려움,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사회 및 복지 관련 환경의 열악, 인접한 도시지역과의 왕래 불편 또는 비싼 교통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초 정착지에 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지역보다는 특히 중부와 북부 지역의 오랄만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2. 경제 및 사회적 통합 양상

### 1) 구직활동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에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흡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경제체제 참여는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카자흐스탄 이주위원회의 통계 자료에서는 경제활동 연령대에 있는 오랄만들 가운데 61.5%만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ommittee of Migration of Republic of Kazakhstan, 2005년 1월 1일). 물론 이는 2000년 노동활동 참여 비율이 32%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지만 2004년 카자흐스탄의 경제활동 연령대 인구의 노동활동 참여 비율이 91.6%였던 것에 비교하면 비율이 확연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비율에서는 지역적인 고용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스타나 지역에서는 대략 91%의 오랄만들이 고용되었으며, 알마티 지역은 83% 수준, 북카자흐스탄 주는 7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반면 남 카자흐스탄주는 비율이 38%, 서 카자흐스탄 주 역시 오랄만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41%에 불과했다.

오랄만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법률적인 장애 요인들이 오랄만들의 구직활동을 저해하고 있는데, 인구 이민법에서 오랄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지만,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권리나 책임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카자흐스탄 노동법에는 현지인과 비현지인으로 근로자의 범주가 설정되어 있으며, 오랄만을 위한 특별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상태에서 오랄만은 비현지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개인들의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유사한 법률적인 장애요인으로는 거주증명이 있다. 오랄만이 카자흐스탄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적을 가지거나 최소한 거주등록 자체는 완료되어야 하는데, 임시거주지나 영구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거주등록을 받아줄 현지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오랄만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은 언어적인 장벽과 관련되어 있다. 오랄만 가운데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류들은 특히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카자흐어의 사용이 확산되어 있는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에서조차도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며, 단지 그 정도가 낮을 뿐이다. 카자흐어를 구사하는 경우에도 특히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에서 이주한 경우에는 아랍어를 사용해서 표기했던 카자흐어 고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터키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라틴어로 표기된 카자흐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릴 문자 표기 카자흐어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 출신들의 오랄만들은 의사소통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문서를 읽거나 작성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결국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모두에서 불충분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이들의 구직활동은 그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을 받은 오랄만의 경우에는 학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전공에 따른 구직활동이 쉽지 않았고, 공학이나 기술 전문인력, 의학, 경제학자 등의 직종에서는 전공을 살린 구직자체가 카자흐스탄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오랄만 가운데 20%는 카자흐스탄 귀국이전에 살았던 국가에서는 정부나 국가 관련 영역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7.2%만이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이후에도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단순노무자의 비율 및 자영업자의 비율은 귀국이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점은 실업자 상태인 오랄만의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는데,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이전에 실업자였던 오랄만은 8.3%였는데, 귀국 후에는 24.4%로 증가했다.(UNDP Kazakhstan 2006,16)

카자흐스탄 이민법 관련조항(29-3)에서는 국가 관련당국은 오랄만들에게 직업교육을 포함한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오랄만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오랄만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랄만이 정착한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을 지역 구직활동 센터에 등록하거나 일시적인 공공근로만을 제공할 뿐이었다.<sup>4)</sup> 또한 지역 구직활동 센터가 진행한 직업교육은 주로 회계 직, 경비직, 운전직 등의 분야였는데 러시아어로만 실시됨에 따라 러시아어 능력이 부족한 오랄만들에게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표 4〉 오랄만 가구의 월단위 수입 분포

수입수준	비율	수입수준	비율
월수입 부재	2.1	20,000 - 30,000	12.8
5,000텡게 이하	13.7	30,000 - 40,000	6.5
5,000 - 10,000	23.4	40,000 - 60,000	3.2
10,000 - 15,000	21.4	60,000 텡게 이상	0.7
15,000 - 20,000	16.2		

※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 in Kazakhstan, Almaty 2006, p.17.

4) 공공근로의 경우 월 수입이 카자흐스탄 텡게로 10,000텡게 정도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원화로 대략 8만원 정도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오랄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유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2003년 UNDP가 추정한 카자흐스탄의 1인당 월 최소임금 수준은 5,128텐게 였다.(UNDP Kazakhstan Infobase) 이와 관련되어 개별 오랄만들의 월수입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45% 정도가 5,000 -15,000텐게 수준의 수입으로, 결국 이는 오랄만 가구 대부분의 수입이 카자흐스탄의 평균 임금수준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법에서는 오랄만들이 장애인보험, 실업보험, 연금, 특정 사회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혜택의 신청과정에서 지방행정 당국은 거주 등록 등의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오랄만들이 이러한 수당을 통한 지원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었지만, 실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수혜 자체가 차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오랄만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국적 취득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원이 귀국 이전에 살았던 국가와 비교하여 미약했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귀국이전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주거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정착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주거문제의 해결이었다. 쿼터제도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오랄만 쿼터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인 이유나 물류적인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수월하지 않았다. 이주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오랄만 가구의 48.3%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쿼터제에 의하지 않고 입국한 오랄만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에서는 주택 보유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5〉 오랄만의 지역별 주택 보유현황 (2005년 1월 기준)

지역명	비율	지역명	비율
아크몰라주	97.3	크즐오르다주	66.9
악토베주	72.6	코스타나이주	79
알마티주	76.9	파블로다르주	86
아티라우주	82.0	북카자흐스탄주	96
동카자흐스탄주	90.1	망기스타우주	32
서카자흐스탄주	50.5	남카자흐스탄주	12
잠블주	49.1	아스타나시	66
카라간다주	93.7	알마티시	47
		전체평균	48

※ 자료: UNDP Kazakhstan, Status of Oralman in Kazakhstan, Almaty 2006, p.18.

5) 2005년 1월 기준으로 45,635가구의 오랄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기숙사, 모스크, 적용센터, 친척 집이나 친구집에 거주하였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랄만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주택 보유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 카자흐스탄주는 11.9%, 망기스타우주는 31.9%, 알마티시 47.1%, 잠블주 49.1%인데, 이 가운데 특히 남 카자흐스탄주가 유독 낮은 비율은 이 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오랄만들이 쿼터제 입국제도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민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거여건도 좋은 편이 되지 못했다. 이는 농촌 주택의 경우 오랄만 거주 이전에 살았던 농촌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방치된 주택이 별도의 수리나 보수절차가 없이 오랄만에 배정됨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주거를 위한 설비가 불충분했고, 심지어 사람의 거주가 부적합한 상태로 오랄만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대부분의 오랄만들은 경제적으로 직접 주택의 수리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살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가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2004년 1월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주택제공 같은 직접적인 주거지원 대신 개인당 지급되는 월 최저생활비의 10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족 구성원만큼 합산한 금액을 일시 지급하여 해당 가족이 직접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실질적인 주거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자신의 저축을 이용하거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충당되었다.

이와 아울러 집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은 오랄만들이 시민권이 없고,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랄만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는 것을 꺼림에 따라 2004년 1월의 제도 변경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쿼터제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오랄만에 대한 주거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따라서 쿼터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오랄만들의 주택문제 해결 상황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지만, 그 규모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 비하면 아주 미미했고, 따라서 일부 지방정부(알마티시, 남카자흐스탄주, 망기스타우즈)는 주택 대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했고, 이를 제공받은 오랄만들은 각자 주택을 짓는 형태로

주택문제 해결에 나섰다.

### 3) 보건과 교육

오랄만들의 전반적인 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관련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동등한 국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카자흐스탄 국민과 이들간에 차별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게 되면 전면적인 종합검진을 받게 되는데, 의료 검진은 단순 검진에서 종합검진까지 그 수준이 다양한데, 어떠한 형태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는 공식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일단 최초 종합검진을 받은 후에 오랄만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국영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관행들은 거의 준수되지 않거나, 또는 이행된다고 해도 지연이 빈번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정착나 권고도 준수되지 않았고, 후속검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보편적이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거주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특히 안전한 식수와 전기의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명이 감염되면 가족 전체로 확산이 쉽게 이루어졌다. 반면 비교적 도시적인 생활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갖추어져 있는 카라칸다주와 알마티주의 오랄만들에게서는 일반 카자흐인들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 이주법 29-2에 의해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는 오랄만들의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쿼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비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상황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교육 수혜연령에 있는 오랄만들의 95.3%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오랄만 가족이 귀국 후에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등록 시키는지의 문제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러시아어학교 보다 카자흐어 학교가 선호 되었는데, 카자흐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말하기는 문제가 안 되었지만 읽거나 쓰기는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어는 키릴문자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릴문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카자흐어 학교에서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빈번히 나타났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초등교육 이수자들의 46%는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이수를 희망하였는데, 오랄만 자녀를 둔 부모들은 54%가 자녀의 고등 교육 이수를 희망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등교육기관과 먼 곳에서 살고 있거나, 자녀의 대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3-2004년에

183,000명의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이 가운데 15,300명은 자비로 진학했고, 단지 16000명이 국가 장학금, 10000명이 국가 교육 대출에 의해 진학하였다. 따라서 26,000명의 국가지원 학생 가운데 오랄만은 520명에 불과했다.

### 3. 2000년대 중반이후 카자흐스탄의 오랄만 정책변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오랄만(재외 카자흐인 귀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쿠티, 시민권, 귀국에 대한 보상 등 귀국에 따른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오랄만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법제도에 대한 무지, 언어적인 부적응, 오랄만들을 위한 특별 적응교육의 부재, 오랄만의 연금 수혜문제, 농촌지역에서의 지역민 관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장벽, 오랄만의 배우자인 비카자흐 인에 대한 시민권 취득 기회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2005년 7월 23일에 우즈베키스탄, 중국, 터키 및 여타 국가 출신의 귀국 카자흐인 대표자들이 “카자흐스탄 오랄만 연합(Union Oralmanov of Kazakhstan)”을 조직하고 NGO로 등록하였다. 이 협회는 재능 있는 오랄만 청소년들의 역사적인 모국 정착지원, 오랄만 고용에 대한 지원, 주택(영구 및 임시거주) 구입에 대한 지원, 오랄만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의 확보,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의 지원 확보 등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었다. 2006년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Union Oralman of Kazakhstan)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오랄만 자녀들의 고등교육, 카자흐스탄 동화 및 조직 결성 등을 위해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4월 4일 오랄만의 지위 개선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sup>6)</sup>

2009년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주 프로그램은 대략 13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누를리 코쉬(축복받은 이주)의 착수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350만에서 450만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 역외 거주 카자흐민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몽골의 카자흐인은 10만명 규모인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카자흐스탄 특정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서몽골지역의 많은 카자흐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근원지로 보는 동 카자흐스탄이 바로 이 특정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역 선택은 경제적인

6) The program of support of Union Oralman of the Union of Kazakhstan  
[http://site.seimarfund.kz/2007/09/10/the\\_program\\_of\\_support\\_of\\_union\\_oralman\\_of\\_the\\_union\\_of\\_kazakhstan.html](http://site.seimarfund.kz/2007/09/10/the_program_of_support_of_union_oralman_of_the_union_of_kazakhstan.html)  
검색일 2012년 4월 9일

“  
**몽골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른바 역사적인 모국이라  
 불리는 카자흐스탄에서 진정한 카자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  
 ”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의 대상에는 국외 거주 카자흐 민족 뿐 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민, 과거 카자흐스탄의 국민이었던 숙련인력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Kaziyeva 2011. 11.02) 몽골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자흐 민족들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를 바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몽골 입장에서 전문인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몽골의 이른바 지식인 카자흐민족이 카자흐스탄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몽골에 남아있는 카자흐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미 상당수의 카자흐인 지식인들이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함에 따라 몽골 카자흐인들의 정치적인 잠재력, 지식인으로써의 잠재력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몽골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른바 역사적인 모국이라 불리는 카자흐스탄에서 진정한 카자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0년간 누를리 코쉬 프로그램에 의해 대략 30만 가구, 또는 백만 명에 달하는 오랄만들은 재정착을 했는데, 주로 망기스타우주, 남 카자흐스탄주, 알마티주, 알마티시, 아스타나시가 주요 대상 지역이었다.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아프가니스탄, 인도 및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오랄만들 가운데 특히 중국 출신 오랄만들은 러시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특별 교육과정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구직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직업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1년내에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오랄만들은 대부분이 몇 개 특정주들만을 거주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약도 철폐되어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sup>7)</sup>

7) 이러한 취약요인들은 이미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2011년말 망기스타우와 악타우 등에서 석유노동자들의 경찰과의 충돌, 악토베에서의 종교집단과 경찰과의 충돌 등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이 디아스포라 카자흐 민족인 오랄만 귀국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된 2011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새로운 정착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이민당국은 2007년 시점에서 이미 카자흐인들이 50만 명 이상 귀환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카자흐인 오랄만의 유입은 인구학적인 문제해결, 인력부족 문제 충당, 카자흐 전통 및 언어의 보존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희망 인력이 급증하면서 오랄만 쿼터는 1만5천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분배,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교육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귀국민 모두가 주택 모기지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고용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정된 프로그램에는 오랄만의 지리적인 분포, 고용 및 주거제공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새로운 이주민이 교육과 직업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센터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아울러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시민권 취득도 귀국후 1년 정도 소요되었던 기간이 최근에는 3개월로 단축되는 등 사회내에서의 지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 보호부 굴샤라 압두칼리코바(Gulshara Abdykalikova)장관은 오랄만에 대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Employment 2020”의 일환으로 계속될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2009-2011년 오랄만에게 혜택이 부여되었던 누를리-코쉬 프로그램이 계속됨을 의미한다.(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 V. 결론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 명 규모의 재외 카자흐 민족이 귀국하였는데, 이 가운데 46만 명이 국가의 공식 쿼터제에 의한 이민자를 의미했던 오랄만이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오랄만들 가운데 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규모,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의 재외동포 귀국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는 몽골의 카자흐인, 중국 신장의 카자흐인, 이웃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집단을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랄만 귀국사업이라는 하나의 틀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지만, 해당국에서의 카자흐인 공동체 형성 및 발전과정, 카자흐인 정체성 유지 측면에서의 상이성, 국가별로 서로 상이한 경제 및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외 카자흐인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은 재외 카자흐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미 많은 한계점들을 노출했다.

또한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약자세력으로써 오랄만의 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재외 카자흐인 귀국사업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으로의 귀국 및 초기정착에만 집중하던 양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카자흐스탄 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방안을 실천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오랄만에 대한 접근의 전환으로 인해 오랄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위한 조직인 카자흐스탄 오랄만협회가 조직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거시적인 노동정책 차원에서 오랄만에 대한 고용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영문자료〉

- Barcus, Holly R & Werner, Cynthia. 2007. "Trans-National Identities: Mongolian Kazakhs in the 21st Century." *Geographische Rundschau International Edition*, Vol.3 No.3. pp.4-10.
- Cerny, Astrid. 2010. "Going where the grass is greener: China Kazaks and the Oralman immigration Policy in Kazakhstan." *Pastoralism* Vol.1 No.2. pp.218-247.
- Cummings, S. N. 1998. "The Kazakhs: Demographics, Diasporas, and Return," in C. King and N. Melvin(eds.), *Nations Abroad*, Boulder, CO: Westview Press.

- Diener, Alexander. 2007. "Negotiating Territorial Belonging: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Mongolia's Kazakhs." *Geopolitics* Vol. 12, pp.459-487.
- Diener, Alexander. 2005. "Kazakhstan's Kin-State Diaspora: Settlement Planning and the Oralman Dilemma," *Europe Asia Studies* 57/2. pp.327-348.
- Dubisson, Eva-Marie & Genina, Anna, 2011. "Claiming an ancestral homeland: Kazakh pilgrimage and migration in Inner Asia." *Central Asian Survey*. Vol.30 Nos.3-4. pp.469-485.
- Kaziyeva, Gulmira. 2011. "Astana develops new oralman repatriation programme: Oralmans must not see themselves as second-class citizens, analysts warn."  
[http://centralasiaonline.com/en\\_GB/articles/caii/features/main/2011/11/02/feature-01](http://centralasiaonline.com/en_GB/articles/caii/features/main/2011/11/02/feature-01)  
(검색일 2012년 8월3일)
- Novosti-Kazakhstan 2012년 2월 1일.
- Schenkkan, Nate. "Kazakhstan: Concern Rising Over Ethnic Kazakh Returnees."  
<http://www.eurasianet.org/nod/65064>(검색일 2012년 6월 27일)
- "The program of support of Union Oralman of the Union of Kazakhstan."  
[http://site.seimarfund.kz/2007/09/10/the\\_program\\_of\\_support\\_of\\_union\\_oralman\\_of\\_the\\_union\\_of\\_kazakhstan.html](http://site.seimarfund.kz/2007/09/10/the_program_of_support_of_union_oralman_of_the_union_of_kazakhstan.html)(검색일 2012년 4월 9일)
- "The Mongolian Kazakh Diaspora."  
[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http://www.macalester.edu/academics/geography/mongolia/mongolian_kazakhs.html)(검색일 2012년 8월3일)
- UNDP Kazakhstan, 2007. *Status of Oralmans in Kazakhstan*. Almaty.
- "Uzbekistan: Economic Problems fuel departure of ethnic Kazakhs."  
<http://www.irinnews.org/Report/24422/>(검색일 2012년 4월 9일).

### 〈논문자료〉

- Open Society Institute Assistance Foundation Uzbekistan, 2002. *Этнический а тлас Узбекистана*. Tashkent: R, Elinina.
- Мендикүлова Г. М. 2006. *Казахская Диаспора: И сториясовременности*. Алматы: Всемирная Ассоциация Казахо в.

● 투고일 : 2012. 11. 01 / 심사일 : 2012. 11. 05 / 게재확정일 : 2012. 11. 10





# Abstract



# Demographic Kazakhization and Repatriation Policy of Ethnic Kazakhs

Sang Cheol Kim  
(Hankuk Univ. of F. S.)

Keywords: Oralman(returnee), ethnic Kazakhs, Iranian Kazakhsemigration of kazakhstani russian, three ethnic kazakh communities in Mongolia, China and Uzbekistan, Kazakhstani oralman policy,

Oralman(returnee) is an official term used by Kazakhstani authorities to describe ethnic Kazakhs who have immigrated to Kazakhstan since its independence in 1991. Oralman usually come from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China, Mongolia, Uzbekistan, Russia, Kyrgyzstan and also from countries with notable Kazakh minorities: Iran (Iranian Kazakhs), Afghanistan, and Pakistan.

Oralman typically settle in areas of Kazakhstan adjoining or near to their former homes, for reasons of climate and convenience; thus returnees from Uzbekistan and Kyrgyzstan are often found in the country's south, while those from China and Mongolia are concentrated in the east. The government prefers to settle them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offers them more benefits. However, returnees themselves prefer regions where the Russian language is less important in every day life, particularly in the south.

Major oralmans immigrated from Western Mongolia, Chinese Shinjang Regions and neighbouring Uzbekistan and settled into various regions in the Kazakhstan. In this process kazakhstani government focused on alleviating of demographic vacuum and imbalance which had been originated by emigration of kazakhstani russian, german, greek and other european ethnic groups since independence of Kazakhstan from Soviet union.

Considering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ajor three ethnic kazakh communities in Mongolia, China and Uzbekistan, desirable Kazakhstani oralman policy should have been needed to diversify by the origin of kazakh immigrants respectively. With this oralman policy of Kazakhstan is now changing from relieving demographical vacuum in Kazakhstani society to social integration of Oralman into Kazakhstani Society.